

국민의 신뢰와 존경 받는 향군 만들어 나가야...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등 풍성한 이벤트



제67주년 향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있는 김진호 회장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향군의 날 67주년 축하음악회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10월8일 국가보훈처 이병구 차장과 본부 및 산하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

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내 왔으며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삼득 보훈처장, 해리 해리스

KBS국악관현악단 축하공연, 향군 자부심 고취... 회원결속 다져

주한 미 대사 등도 화환과 축전을 보내 제67주년 향군의 날을 축하했다.

김진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향군은 지난 67년 동안 국가적으로 안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라며 “우리 1천만 향군회원들은 지난 67년간 국가안보와 산업화의 중추적 역군이었던 자부심을 갖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도록 향군 창설 67주년을 계기로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향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향군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향군대휘장을, 본부 기획행정국 진광진 기획부장 외 30명에게 공로 휘장을, 재향군인상조회 경영지

원부 우혜숙 대리 등 각급회 근무유공자 222명에게 향군회장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 성균관대학교 김민성 학생 등 각 지역에서 추천된 25명의 대학생에게 향군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향군은 참전용사 후손과 제대군인 및 향군 정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이 우수한 대학생 등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2012년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179명에게 8년 동안 1억 7천 2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은 축사를 통해 “향군은 애국안보단체로서 올해 국제 재향군인회의와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한일 군사감등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밤과 미국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의 벽 성금 전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위선양

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 이어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향군의 날 67주년을 축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의의를 더했다.

김지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악인 박자희씨, 바리톤 이응광, 국악인 박천음씨 등이 출연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매진해 온 향군회원들을 위로했다.

향군회원들도 국악과 퓨전음악이 어우러진 이날 공연을 관람하며 ‘향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회원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전국 각급회 및 해외지회도 10월8일 향군의 날을 전후로 안보현장 견학, 안보 강연 등 다양한 안보활동을 겸한 자체 기념식을 갖고 회원 상호 친목 도모와 함께 안보결의로 제2 안보보루로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美 유해발굴단장 방문, 미군유해 발굴 논의

향군, 전국조직 활용 유해발굴 동참...보은 미, 46개국과 협력...그 중 최고는 한국

켈리 매키그 (Kelly K. Mckeague) 미 유해발굴단장이 10월23일 향군을 방문, 김진호 회장과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진호 회장은 매키그 단장을 맞아 환담하고 향군현황과 6.25전사자 유해 발굴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진호 회장은 “향군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는 2만8천여 주한미군장병들에게 대한 감사와 함께 이들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미 참전용사들에게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보답을 해 왔

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국전에 참전했다 지금까지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 유해 발굴에도 향군의 전국적인 조직을 이용,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혈맹인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매키그 단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잊으면 그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캘빈클리지 미 30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은 현재 46개국과 협력하여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최고의 파트너는 대한민국 유해발굴감식단”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향군과 협력하여 전국 각지에서 얻은

중요 정보를 활용하면 유해 발굴 사업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년 초 각급회에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전국 4천여 개 조직을 풀가동하여 사업홍보, 주민들의 증언 확보, 유전자(DNA) 채취 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9월말 현재 DNA 시료채취 14명 증언 2건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예비역 공군소장 출신인 매키그 단장은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PAA) 국장으로 미 국방성 차관급 인사다.



켈리 매키그 미군 유해발굴단장 일행과 김진호 향군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매키그 단장은 김진호 회장이 지난 7월 말 ‘추모의 벽’ 성금 전달 및 ‘미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 했을 당시

만나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면 향군을 찾아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㉔

민간외교 침범, 향군 해외조직과 국제협력 활동

-1961년 5월 8일 세계재향군인연맹(WVF) 가입, 각국 향군단체와 친선교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최초 해외조직은 1962년에 결성된 일본특별지회다. 그 후 1969년 미동부지회를 비롯해 1970년 월남지회(베트남), 브라질 남부지회, 미국 서부지회가 설치되었으며 뒤를 이어 1980년대 중화민국지회(대만), 호주지회, 미국 중서부지회, 미국하와이지회, 캐나다지회 등 해외지회가 잇따라 창설되어 현재는 13개국 22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해외지회가 대거 늘어나자 본회에서는 1980년 해외지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던 한편 해외지회 설치규정을 개정하여 해외지회의 조직과 임원명칭을 국내지회와 동일하게 통일했다. 또는 모든 해외지회의 재정은 기본회비와 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부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화했다.

13개국 향군 22개 지회 친선교류 확대, 민간공공외교 강화

이중에 특이한 것은 월남지회의 창설과 중화민국지회 창설이다.

월남지회는 월남전에 국군이 파병된 것을 계기로 국내 건설업체를 비롯한 용역업체가 대거 진출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이

들을 보호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당시 향군회원만 1만 명이 넘었다. 그 후 지역별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사이공, 나트랑, 퀴논, 다낭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회회를 설치하는 등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향군조직은 늘어갔다. 그러나 월남전에서 월남정부가 패색이 짙어지고 전황이 긴박해지면서 1973년 3월 14일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철수함에 따라 해외지회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1975년 4월 1일부로 폐쇄 조치했다.

그 이후 현재 베트남과는 정부차원에서 수교는 물론 경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군조직의 복원도 다시 추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중화민국지회는 1982년 10월 9일 창설되었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을 겪은 후 중국과는 적대 관계로 지내왔지만 중화민국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중화민국 지회 결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점점 관계가 소원해 지면서 현재는 현상유지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각국에 해외지회가 창설되고 지회가 늘어나면서 국제 활동도 활성화 되었다. 국제 활동이 활성화 되게 된

배경에는 본회가 세계 각국의 향군단체들과의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직에 가입하면서 부터다.

6.25참전국 중심 국제활동에서 글로벌 향군활동으로

향군은 1961년 5월 8일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 65개국 165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재향군인연맹(WVF)에 가입하고 1962년에는 6월 한 달을 ‘세계재향군인의 달’로 정해 서울 시청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등 향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과거 향군의 국제협력활동은 6.25참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향군으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 활동도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향군은 ▲ 주한 미군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강화 ▲ 미국의외 국가의 향군단체와의 교류협력확대 ▲ 해외지회 청년회원 확대 및 조직 활성화 등을 국제협력 활동 중점으로 삼고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보실>

뉴스초점

“전략권 이양은 북한 오판 부를 것”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되면 북한 지도부가 미-한 동맹군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가 분리됐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10월22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방송)에서, “북한이 핵역량을 갖게 된 이상, 한국이 모든 작전을 수행하다 핵전쟁 상황이 되면 미국이 마치 마술처럼 핵우산을 틀어오는 시나리오는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같이 지적했다.

2013년 4월에도 VOA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벨 전 사령관은 “2013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운반 역량은 상당히 진전됐다.”며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해졌다.”고 덧붙였다.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이전식

외교부는 10월23일 경기도 평택시 M프라자 빌딩에서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이전식’을 개최했다. ‘평택 소파(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국민지원센터’는 외교부 최초의 지방조직으로서 개소 이래 평성읍 레포츠 공원 내에 위치하다가 지난 8월 자체 예산 확보에 따라 평택 중심부로 이전했다.

센터는 ‘서울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2013년 설립)와 함께 ▲평택지역 내 주한미군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담 등 민원 처리 ▲지방자치단체·경찰서 등 주한미군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관계 구축 및 협업 강화 ▲미군-지역사회간 조화로운 민군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 등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육군협회 세미나, 한미동맹 중요성 확인

대한민국 육군협회(회장 김관규)는 10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코리어나호텔에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위협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현 실태를 진솔하게 진단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권영해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과 차관, 전 육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최병혁 연합사부사령관과 김승겸 육군참모차장 등 군 주요직위자,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학계, 언론계, 방산업체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최대 내륙 유람선사 충주호관광선, 단양영업소 개소

충주·월악·청풍·장희에 이어 5번째... 전시관,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 갖춰

향군 산하기업체인 (주)충주호관광선이 10월24일 충주·월악·청풍·장희영업소에 이어 5번째 ‘단양영업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관계자와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단양영업소의 출발을 축하했다.

단양군 도전리 구경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단양영업소는 기존 문화마루를 리모델링하여 미술전시관, 매점,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휴양시설로 새단장하고 문을 열었다.

단양영업소에서 운항될 향군 하나호는 지난 2014년 6월 건조된 117톤 강선으로 2층 구조이며 최대 19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유람선이다.

운항구간은 단양영업소 선착장을 출발해 대명리조트→상진대교→잔도길→만천하스카이워크를 회항하는 코스다.

(주)충주호관광선은 한반도 중원을 흐르는 남한강에 1986년 다목적 댐 건설로 형성된 충주호와 제천, 단양까지, 호반위에 펼쳐진 수려한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뱃길을 열어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오랜 전



(주)충주호관광선은 10월 24일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관계자와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양영업소 개소식을 가졌다.

통의 관광회사다. 연간 40여 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내륙의 최대 유람선사로 90인승부터 464인승까지 총6척의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다. 유람선이 정상 운항되면 단양군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양 8경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향군수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주민, 군경, 재향군인회원 등에는 승선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탑승을 희망하는 분은 신분증 및 할인 관련 확인증을 지참하고 해당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호국정신 함양의 터 국립 괴산호국원 개원... 충청권 최초

630억 예산 투입 90만m² 부지에 10만기 안장능력 예정... 자연장 1천기 조성



괴산호국원 개원식에 참석한 김진호 회장과 향군임직원

향군, 영천·임실·이천·산청호국원 조성... 5번째 괴산은 공사 관리 2021년 제주호국원 개원... 2023년까지 16만기 수용시설 조성

영천, 임실, 이천, 산청호국원에 이은 다섯 번째 호국원인 국립 괴산호국원이 10월11일 이낙연 국무총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김진호 향군 회장 등 내빈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괴산 군민, 군 장병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괴산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개원식 행사를 갖고 문을 열었다.

국립괴산호국원은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수도권 지역 국립묘지의 만장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약 630억 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추진하여 이번에 개원하게 됐으며 부지매입 및 공사관리는 향군에서 담당했다.

향군은 첫 번째 영천부터 임실, 이천, 산청호국원까지 조성하여 국가보훈처에 기부 채납한 바 있으며 금번 국립 괴산호국원부터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향군이 부지매입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금년 11월 착공될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도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향군이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괴산호국원은 약 90만m² 부지 위에 국립묘지 최초로 현대식 시설을 적용한 본원동에 현충관, 관리소, 식당, 제례실 등을 갖추었고 각 묘역별 화장실 및 정비창고와 야외화장실, 경비동 등 6개동의 건물을 신축했다.

금번 묘역 조성은 1묘역에 약 2만기 규모의 야외봉안담 시설과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잔디장) 1천기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이외 현충탑과 휴게 시설을 갖추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평안한 안식처 제공은 물론 후손들의 나라사랑의 참 뜻을 일깨울 수 있는 호국정신 함양의 터가 되도록 조성됐다.

향후 2묘역 및 3묘역이 추가로 조성되면 총 10만기 규모의 안장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며 자연장지에 대한 호응도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도 계속 늘릴 예

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국립괴산호국원의 개원 의미에 대해 충청권 최초의 호국원이자 가장 큰 호국원이며 국립묘지로서는 처음으로 자연장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하며 괴산호국원이 충북도와 괴산의 자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제주호국원을 개원하고 2023년까지 16만여 기를 모실 시설을 더 짓겠다”며 “보훈과 함께 선조와 애국지사들이 꿈꿨던 나라를 세우는데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개원식은 국군 의장대 시범공연과 KBS제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공연, 국립괴산호국원 소개 영상 등의 식전공연에 이어 본행사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유공자 포상 및 6.25참전 전사자의 유가족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호국원 조성 공로로 향군 강경운 현충사업부장과 괴산군청 김미남 주무관이 대통령표창을, 국가보훈처 김상현 시설사무관과 문광면 광덕4리 유정호 이장, 문광면발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90만m² 부지에 조성된 괴산호국원 전경

5천만 국민 누구나! 재향군인회상조회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국가대표급' 감동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상조상품	크루즈 여행상품	향군전용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336 · 마음튼튼450 · 국민감동520 *월1만원대로 부담없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노선 5박 7일(2인) · 서부지중해노선 8박 10일(1인) *풀패키지, 발코니객실, 전문인솔자 동행, 전노선 500만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야외시설 · 수목장지 · 실내봉안당(계획)



- 상조 상품가입으로 크루즈 여행서비스까지 회원특전으로 제공합니다.
- 장례서비스에서부터 장지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모십니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 무료 병역이행상담, 회원복지물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1577-0720	여행상담 02-2218-7152	묘역상담 02-2218-7143
-------------------	----------------------	----------------------

태풍 피해복구 발 벗고 나선 우리의 국군... 국민상처 회복 총력

잇단 태풍으로 상처 입은 국민 위로 복구 앞장 서...

국군 장병들이 13·17호 태풍 링링과 타과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한반도를 휩치고 간 18호 태풍 '미탁'의 피해를 복구하고 국민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는 10월3일과 4일 태풍 피해가 컸던 동해안 및 남해안 지역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펼쳤다. 2작전사는 부산·

울산·영덕·울진 등 11개 지역에 병력 293명을, 성주·청송·경주·장사 등 23개 지역에 병력 995명을 투입해 토사 제거, 벼 세우기, 하천 부유물 제거 등 다양한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50사단 장병들은 수리온 헬기를 활용한 생수 5000병 수송 지원 활동과 함께 울진·강구시장에서 침수상가 및 가옥 정리, 토사 제거 대민지원을 했다.

53사단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산사태로 마을을 뒤덮은 토사를 제거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의 쓰레기와 잡목을 수거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했다.

39사단은 강물이 범람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 현장과 통영 민가 도로 일대에서 환경정리 및 토사 제거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해군·해병대도 신속한 대민지원에 나섰다.

해군3함대 318대대는 태풍이 지나간 즉시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장병들은 거문도 도로 곳곳의

토사를 치우고 엉켜있는 나무들을 정리해 통행로를 확보했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태풍 경북 포항 일대에서 침수 피해 복구에 집중했다.

공군18전투비행단 장병들도 강원도 강릉 지역 일대에서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10월4일 공군 장병 320여 명이 강릉시 내곡·성덕·경포동 등에 투입돼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농경지를 복구하고 산사태로 파손된 도로를 정비했다. 일부 장병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대민지원에 참여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해군1함대, '사랑의 의술' 펼쳐



해군1함대 의무대 장병들이 9월 26일 지역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주위에 병원이 적어 적시에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인 강원 동해시 송정동 상가회관을 찾아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무대는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을 꾸리고 송정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찾아가는 의료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진료는 내과, 외과, 통증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이와 함께 건강 상담과 보건교육을 병행,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를 높였다.

의무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자주 계획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군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육군51사단

오이도 선착장 환경정화

육군51사단 진격대대 장병들이 경기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일대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펼쳤다.

장병들은 "경기도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10월16일 오이도 어업인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오이도 선착장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장병들은 해안 주변에 버려진 각종 부유물과 해양쓰레기를 수거,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 51사단은 매달 행사에 참여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해병대 전차대대

냉천 수변공원 환경정화



해병대 전차대대 장병들이 9월30일 미 해병대 무적캠프 장병들과 함께 제12회 포은문화축제를 마친 냉천 수변공원 주변 환경정비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전차대대와 미해병 무적캠프 장병 100여명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자매결연을 통해 포은문화축제 참여, 대민지원, 무료급식봉사, 냉천 자연정화활동, 체육대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봉사하고 지속적인 끈끈한 정을 나뉘고 있다.

국방단신

후방지역 매설지뢰 2021년 10월까지 제거

국방부는 지뢰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 지뢰 제거작업을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 투입해 2021년 10월까지 조기에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개 팀 200여명 정도 투입되던 인력을 31개 팀 1,2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매설된 지뢰는 플라스틱 지뢰(M14)로 기존 금속지뢰탐지기로는 제한이

있으므로 플라스틱도 탐지 가능한 비금속지뢰탐지기와 경사·암반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굴삭기 등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같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방호를 위해 37개 기지 주변에 대인지뢰(M14) 약 5만 3천여 발을 설치했으며 1998년부터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해 2007년까지 약 5만여 발을 제거했으나 약 3천여 발은 회수하지 못했다.

미래 예비전력정책 개혁방안 모색

동원·예비전력의 역할과 발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예비전력정책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방대학교에서 열렸다.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는 지난 15일 교내 컨벤션센터에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주제로 학·군·연 예비전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대 권헌철 부총장의 환

영사와 동원전력사령부 구원근 사령관의 축사로 시작됐고, 건양대학교 이세영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권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미래 예비전력 건설의 기틀을 제공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학·군·연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구미시 공동 채용박람회

방위사업청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공동으로 10월2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한화 화약방산, 한화시스템을 포함하여 LIG넥스원 등 방산 기업 5개사와 일반 기업 50여개사 등 약 60개사가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구미시 등 정부기관 및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

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기관별 홍보관을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창원, 이번에는 구미시와 지역밀착형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해 방산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인근 지역의 전역예정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군 장병, 사랑의 헌혈 운동



공군1방공유도탄여단은 지10월 4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부대 전 장병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공군 핵심가치 헌신을 실천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장병들은 줄지어 이동헌혈 차량에 올라 헌혈에 동참하며 나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날 장

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혈액은 이를 꼭 필요로 하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병들은 "많은 장병이 헌혈을 통해서도 국민의 생명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안정적 일자리를...”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 10월7일~11일까지 범정부 행사로 운영

국토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자긍심을 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이 박삼득 보훈처장과 각 보훈단체장, 제대군인,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대군인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여러분의 취·창업에 도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으며 국방을 포함한 공공분야의 제대군인 채용을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인증패 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 홍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개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 우수작에 대한 표창장이 전달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2019년 제대군인 주간 행사는 10월7일부터 11일까지 '제대군인에게 자긍심 부여, 제대군인에 대

한 감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국민 등이 함께하는 범정부 행사로 운영됐다.

보훈단신

룩셈부르크·네덜란드 방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용사와 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10월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6·25참전국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참전국과의 국제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내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6·25 70주년 사업 아이디어 공모

국가보훈처는 10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 2020년 '6.25전쟁 70주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6·25전쟁 70주년'의 의미를 전 국민이 함께 되새기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70주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단체포함)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koreanwar70contest.com)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주제는 '기억과 감사의 장', '화합과 평화의 장', '미래 희망의 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공모가 진행되며 '6.25전쟁 70주년' 사업과의 적합성, 창의성, 사업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1건, 상금 500만원), 우수상(3건, 각 100만원), 장려상(6건, 각 50만원) 등 총 10건(11백만 원)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해 11월 말에 시상한다.

국립이천호국원

'독도 사랑' 행사 개최

국립이천호국원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독도 사랑' 행사를 개최했다.

이천호국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개최된 '독도 사랑' 행사는 독도 바다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 사진전시회, 대형 태극기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고 국립이천호국원 페이스북(facebook.com/icnc2000)에 응모하는 태극기 포토존 페이스북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엔의 날' 맞아 12개국 유엔참전용사 방한

기념식 참석, 참전용사 숭고한 희생 기려 ... 분단 현실 체험도

제74회 유엔의 날(10월24일)을 맞아 미국, 영국 등 12개국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140명이 10월21일부터 5박6일간 방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큰 용기를 보여준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22일 전쟁기념관 방문과 서울 현충원 참배를 통해 전우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엔의 날인 24일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제74회 유엔의 날 기념식 및 오찬행사'에 참석했다. 그리고 25일에는 과주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여 분단의 현실을 체험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주한 참전국 각 대사와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 정부가 마련한 '평화의 사도메달'도 수여받았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 시범사업 실시

국가보훈처-고용노동부, 실무협의체 운영

국가보훈처와 고용노동부는 10월2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 10월21일부터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상담 프로그램'은 취업할 의사

는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직업종류 등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상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원하는 직업과 그에 필요한 역량과의 격차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보훈처는 양 기관의 협업을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내년부터 참전 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충청북도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내년부터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충청북도는 10월28일 최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지급액,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쯤 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

나 이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충북도 차원의 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명예수당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충북, 충남, 전남뿐이다. 시·도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1만원이다.

대구시 향군, 호국단체 한마음 대회 개최

‘북한 비핵화 촉구’ ... 한 목소리로 ‘안보 확립’



대구 지역 안보 및 보훈단체의 연합체인 대구시 호국단체연합회(회장 김인남, 대구시 향군회장)는 10월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를 주제로 제1회 호국단체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을 비롯해 각 지자체장, 시·구 의원, 호국단체

회원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비핵화를 통해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준수와 이행을 북한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인남 대구시 호국단체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가 결코 아닌 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흠어진 안보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 향군,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대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 기원, 국가 안보정책 뒷받침 결의



부산시 향군(회장 김윤호)은 10월1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윤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시민들 안보의식을 더 높이는 데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1천여 향군회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비

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정권 및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을 위한 국가 안보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장, 향군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군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전달,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 초청 만찬

향군 미북서부지회(회장 이근안)와 SF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주한미군 초청 감사 디너 만찬’ 행사가 10월25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아메리칸 리전 포스트 419(American Legion Post 419)에서 열렸다.

6.25 참전 미군과 한국 주둔 재향미군에게 감사하고 양국 참전용사들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만찬에는 고령의 양국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주최 측이 준비한 전통 음악과 한국 음식을 즐기면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전쟁을 회상했다. 월터 샤프 한국 주둔 미재향군인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양국의 협력 우호 관계는 군인들로부터 시작됐으며 미군들은 6.25 참전으로 한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킴으로써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했다.

한편 이날 리사 길모어 산타클라라 시장은 이근안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북 안동 향군, 군가 부르기 대회 ... 대상 여성회

군가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경북 안동시 향군(회장 강병도)은 10월8일 안동실내체육관 연회장에서 보훈 및 기관단체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7주년 재향군의 날 기념 군가 부르기 행사를 개최했다.

강병도 회장은 “군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불렀던 군가를 함께 부르며 군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군가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향군 회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상에는 안동시 향군 여성회가 수상하여 상금 50만원을 받았으며 옥동, 임하면 향군이 우수상을 수상 각각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안동시 향군은 안보단체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남 울산 향군, 경남 병무청장 초청 간담회

국가안보와 사회 발전위해 함께 노력



경남·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10월17일 향군회관에서 이관연 경남지방 병무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손도수 회장은 이관연 경남지방 병무청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병무청의 국가안보를 위한 노력을 치하하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향군과 병무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관연 병무청장도 “평소 병역자들에 대한 대우와 예우에 대해 국가가 소홀했던 부분을 재향군인회가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히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향군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새로 알게 되었고 국가안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병무청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충남 향군, 분단현장 견학 ... 안보의식 고취



대전·충남 향군(회장 박재운)은 10월9일, 10일 강원도 양구군 을지전망대·제4땅굴과 고성군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교육을 실시했다.

향군 영 호남 화합행사, 국민통합 앞장

■전북 향군-경북 향군, 20여년 간 우의 다져



전라북도 향군(회장 주대진)은 10월15일 경상북도 향군(회장 양정석)을 초청,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과 경북 향군회원 2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오펠리스 컨벤션에서 '제22차 국민화합(전북-경북)친선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98년 경북 구미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뒤 매년 친선교류행사를 통해 우의를 다져오고 있는

전북과 경북 향군은 이날 상호향토문화를 소개하고 영·호남간의 갈등 해소, 지역 특산품 팔아주기, 문화 및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를 통해 우정을 나누었다.

주대진 전북 향군회장은 "먼 길 마다않고 경북에서 전북을 찾아준 경북 향군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보에는 너와나, 남녀노소, 특히 영·호남 지역구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 전남 향군-대구 향군, 국민통합 기여



광주 전남 향군(회장 나중수)은 10월25일, 26일 대구시 향군(회장 김인남)을 초청, 광주 안보회관에서 영호남 친선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 권영진 대구 시장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했으며 상호 지역 특산품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어 목포일대와 강진군 지역을 방문해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을 체험하고 다음날 강진 금빛 갈대축제에 참여해 뱃길 탐방과 가우도를 둘러보며 상호 이해

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나중수 광주 전남 향군 회장은 "앞으로도 빛고을과 달구벌의 교류행사를 계속 활성화해 향군의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 향군과 대구 향군의 영호남 교류행사는 지난 2014년 대구에서 처음 광주 전남 향군을 초청하며 시작됐으며 매년 답방 형식으로 상호 초청행사를 하고 있다.

◆위기 극복의 첨병 / 강원도 원주시 향군

위기를 기회로 ... 도약 꿈꾸는 희망찬 조직

회원 참여 건설사업본부 발족 ... 원활한 회 운영 기여

원주시 향군은 1998년 원성군과 통합하며 개운동 회관과 단계동 회관 2곳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회 재정의 대부분은 단계동 회관 임대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단계동 회관은 전층 임대되어 임대수익의 연 3천6백으로 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한 재정자립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아울러 일부 공간에는 여러 친목단체들이 입주하여 지역 안보 보훈 요람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주시 향군은 완전한 재정 자립을 위해 개운동 회관 리모델링과 건설사업본부 발족을 추진했다.

개운동 회관 리모델링 향군 위상 고양

개운동 회관은 원주시로부터 2억6천8백만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개운동 회관에는 국제견기연맹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견기운동 활성화를 도모하며 여러 견기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와 맞닿춰 향군의 위상제고 및 이미지 고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본부는 건설업을 하는 원주시 향군 임원 및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건설 발주액의 일정 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지원받아 회 재정에 보태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각급회에서 시도해 봄직한 재정보호의 새 모델이다.

이처럼 원주시 향군은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내고 있는 향군 지방조직 운영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남다른 불우이웃돕기, 1회원 1지인 확보 실시일반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회 운영으로 지역 최고의 사회단체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돕기 운동은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단체 역할의 전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주시 향군은 연중 수시로 1회원이 1지인을 확보하여 실시일반 모금운동을 펼쳐 6.25참전용사 중 생계가 어려운 10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연말 정기행사처럼 진행하는 그것과 달리 자신의 능력한도 내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몸으로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민과 회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원주시 향군이다.

지금 원주시 향군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아직은 먼 미래라 할 수 있지만 분리된 향군회관을 통합한 새 회관 건립을 추진하려 한다. 단계동과 개운동 2곳의 회관을 매각 후 중요요지에 향군회관을 건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본회의 재정위기로 모두 힘들어하는 요즘, 위기를 기회로 자립모형을 찾아가고 있는 원주시 향군에 경의를 표한다.

'희망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만 찾아 온다'는 말이 있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나아가야 할 길이 옳은 일이라면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다. 원주시 향군에 큰 박수를 보낸다.

양정석 경북 향군회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

향군 조직 활성화, 소외계층 위한 봉사 귀감

양정석 경상북도 향군 회장이 10월23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열린 2019 경북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

양정석 회장은 1978년 성주군 예비군 중대장을 시작으로 성주군 라이온즈 회장, 성주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주군 재향군인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바 있다.

또한 경상북도 향군 회장으로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도내 재향군인회 조직 활성화 및 재향군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게 됐다.

부산 사하구 향군, 호국정신 함양행사



부산 사하구 향군(회장 홍순오)은 10월24일 '안보현장 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고령 6.25참전유공자비와 합천 해인사를 방문, 안보의식을 다졌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9월21일 ~ 10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10월18일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역새플 축제장 등지에서 임직원 문화탐방행사 실시.

영등포구회 : 10월14일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및 설거지 봉사.

은평구회 : 10월7일 은평을 강병원 국회의원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은평구 향군 조례 개정 등 현안 논의.

중랑구회 : 10월11일 향군회관과 인근 식당에서 6.25참전용사 위로연 개최.

노원구회 : 여성회는 10월5일 상계 3, 4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이 미용 봉사활동 실시.

양천구회 : 10월16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자유공원 등 인천지역 안보현장 견학.



서초구회 : 10월15일 인남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경인 아라뱃길, 육군사관학교 등 안보현장 견학.

부산시 향군



기장군회 : 10월18일 호국안보 전적지 순례 일환으로 영천호국원을 방문, 호국영령 참배.



금정구회 : 서3동회는 9월21일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쌀 나눔 행

사 가져.

대구시 향군

달서구회 : 여성회는 9월25일 신당동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반찬 봉사활동 실시.



수성구회 : 9월24일 만촌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하여 다부동전적지와 칠곡 호국평화회관을 견학, 전후세대 안보현장 체험학습 실시.

동구회 : 10월11일 경북 칠곡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행사장에서 안보체험 행사 가져.

서구회 : 여성회는 10월7일 서구제일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전개.



북구회 : 9월24일 팔달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 안보교육 일환으로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호국평화기념관 견학.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0월16일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2019 서울 ADEX(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행사에 참석,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상과 우수성을 현장에서 체험.



남동구회 : 9월25일 구월2동 주민센터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환경취약지역 환경정비활동 실시.

동구회 : 9월24일 향군회관 일대와 동구청 주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10월8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해군전적지와 참수리함 견학, 안보의식 고취.



계양구회 : 10월4일부터 6일까지 연평도를 방문,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으로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안보의식 고취.

서구회 : 9월25일 원적산 등산로 주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강화군회 : 여성회는 10월5일 강화군 양도면에 위치한 계명원(고아원,보육원)에서 뽕빵나눔 봉사활동 실시.

경기도 향군

경기도회 : 여성회는 10월1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원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젠더 리더쉽과 치매예방운동요법 교육 실시.



용인시회 : 10월15일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 통일 안보교육과 6.25전쟁 체험전시관을 둘러보고 안보관 재정립.



수원시회 : 10월8일 안보 현장 견학 행사의 일환으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제4땅굴 안보관 방문.



부천시회 : 10월7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리고 있는 지상군페스티벌 행사장을 방문, 군 장비 견학 및 병영훈련 체험 실시.

시흥시회 : 청년단은 10월19일 안보견학 행사 일환으로 북한 잠수함이 전시된 강릉 통일공원 방문.

강원도 향군



인제군회 : 10월1일 기린면 일원에서 태극기 달아주기 캠페인 전개.



속초시회 : 9월30일 설악산 정고평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에서 자유용사 추모제 거행.

춘천시회 : 10월11일 꿈자람 어린이공원에서 안보결의대회와 전적지 순례행사 기념식 개최.

충청북도 향군



충주시회 : 9월27일 충주농협 하나로 음식점에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위로연 가져.

옥천군회 : 10월4일 111연대의 초청으로 2019년 화랑·한마음 단결행사 참석.

영동군회 : 여성회는 10월16일 무궁화동산 환경정화활동 실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대덕구회 : 10월3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기념관을 방문, 유엔군 전물장병 추모하고 안보의식 함양.

대전 중구회 : 여성회는 10월 한 달 동안 대전역 주변에서 기숙하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실시.

부여군회 : 9월30일 서동공원에 위치한 오천결사대 충혼탑에서 백제문화제 제불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천결사대 충혼제 봉행.



금산군회 : 9월30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역 자매부대를 방문,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장과 간담회 가져.



보령시회 : 10월14일 전남 장성군 포병학교를 방문, 전시된 포병 장비 관람 및 시승, 병영시설 견학 행사 실시.

전라북도 향군

장수군회 : 9월26일 경남 영덕군 향군을 초청, 장수농협 회의실에서 제22차 친선교류행사를 갖고 지역 특산물 교환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친목 도모. 9월28일 제33회 9.28 항토수복 존물자 추모제 참석.

전주시회 : 10월11일 최유철 안보교수를 초청, 전주생명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실시.

군산시회 : 10월8일 최유철 안보교수를 초청, 안보강연 실시. 여성회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에서 간식부스 운영을 통해 장학금 조성 기여.



진안군회 : 10월8일 벚꽃마을회관에서 경북 청도군 향군을 초청, 국민화합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개최. 여성회는 10월8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커피와 제빵봉사활동 실시.

부안군회 : 10월4일 참전용사 김복식 이등상사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참석, 위로 물품 전달.

정읍시회 : 9월28일 6.25전쟁 당시 정읍경찰서 유치장 수감 중 억울하게 학살된 호국영령들을 모신 피학살묘에서 열린 추모제 참석. 9월27일 정읍시 무공수훈국가유공자 전공탑 참배. 10월18일 경북 김천시향군을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으로 초청, 국민화합 호 · 영남 친선교류 행사 가져.



남원시회 : 여성회는 10월1일 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흥부사랑 줌どり 쌀 모으기 선포식에 참석하여 줌どり 쌀 지원. 10월2일 용성초등학교 출신 6.25 참전용사 다섯 분의 참전용사 모교 명예 증정식 참석.

무주군회 : 9월30일 '북한의 비핵화 및 북한의 행태'를 주제로 임직원 안보교육 실시.

임실군회 : 9월25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열린 월남전참전 전북지역 전사자 합동 위령제 참석. 10월15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등을 방문, 역사탐방행사 실시.



김제시회 : 10월12일 금산사 입구에 위치한 안 영권 하사 전공 기념비에서 제67주기 추모제 실시.

완주군회 : 10월15일 경북 고령군 향군을 초청, 소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제22차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를 갖고 화합행사를 통해 친목 도모.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여성회는 9월25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행동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광주여성 75만 함께 가자!' 라는 주제로 열린 제27회 광주여성대회 참석.

무안군회 : 10월2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및 백동묘역에서 열린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9월24일부터 27까지 해외 참전

국 위문행사 일환으로 6.25 당시 첩보부대 등 특수부대와 물자를 지원해준 대만 방문.



영주시회 : 여성회는 9월27일 자매부대인 육군 제3260부대 3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 문수면 여성회는 10월10일 월호교 주변 생태교란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 실시.



영천시회 : 9월30일 영천국립호국원에서 열린 제69주년 영천대첩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호국영령 추모.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영천대대 체육행사장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울진군회 : 9월23일 사찰 자활사에서 열린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섬멸 육탄12용사 총용탑 및 국군 3사단, 8사단 호국용사 총용탑 기공식 참석.

안동시회 : 10월11일 성희여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초청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 청소년 나라사랑 현장학습 실시.

칠곡군회 : 10월5일 향군회관에서 청소년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나라사랑 시 낭송대회'를 개최, 애국의식 고취.

상주시회 : 10월16일 북한 시민공원에서 열린 화령지구 전투 전승위령탑 추모행사 참석.

포항시회 : 10월17일 3대 청년단 단장에 김형훈 (주)흥한 대표이사 취임.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여성회는 9월26일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제2회 경남 여성한마음대회참석.



통영시회 : 10월11일, 12일 충주호, 범주사 등지에서 안보견학행사를 갖고 임직원 및 회원 화합 도모. 여성회는 10월6일, 7일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 안보현장 견학, 안보관 확립.

함안군회 : 10월8일 함안군청을 방문, 조근제 함안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향군활동 브리핑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하동군회 : 여성회는 10월8일 하동초등학교 100주년 광장 앞에서 '소중한 생명, 우리가 지켜요' 라는 주제로 열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참여. 9월25일 하동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여수 반 잠수정 전시관 등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의령군회 : 10월10일 시골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실시. 지정면회는 10월1일 바람소리 언덕 6.25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추모제 거행. 9월24일 장사상륙작전 일대 안보현장 견학 실시.



남해군회 : 10월4일 남해여중 학생들을 초청, '사천우주항공박물관과 거제포로수용소' 일대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10월11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호국평화기념관 견학 및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 참석.

산청군회 : 여성회는 10월4일 한방약초축제 행사장 봉사활동 실시.

고성군회 : 9월23일, 26일 6.25참전유공자 및 유족 가정 18곳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환경 정리 봉사 실시. 10월12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호국평화기념관 견학 및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 참석.

양산시회 : 여성회는 9월21일 장애인 복지시설 상북면 좌삼리 늘푸른집을 방문, 중증장애인 목욕 및 식사지원 봉사활동 실시. 여성회는 10월11일부터 3일간 삼랑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먹거리 음식준비 등 봉사활동.

진주시회 : 10월12일 경북 칠곡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행사장에서 안보현장견학.

울산 동구회 : 10월5일 7765부대 2대대 부대개방행사에 참석, 병영시설체험 및 견학 실시.

울산 남구회 : 신정3동 여성회는 10월8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이어 문수양궁장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9월25일 제주 칼호텔에서 '2019년 도향군 임직원 연수회'를 개최, 올해 향군 활동과 앞으로 추진 방향 토의. 여성회는 9월21일, 22일 안보 ·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 일환으로 국립 현충원 등을 방문.

서귀포시회 : 9월30일 명품관 회의실에서 안보결의대회 개최.

친목단체 활동

육종전우회, 전몰전우 추도식 ... 이천호국원 총용탑서 엄수

총 32기수 7,288명 임관
1,377명 전사, 2,256명 부상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가 10월22일 이천국립호국원 현충관에서 육종전우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가졌다.

김정규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70여 년 전 우리는 피 끓는 청춘이었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주저 없이 전쟁터로 달려가 목숨 걸고 싸웠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을 있게 한 창군주역들이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의 영웅들”이라고 1,377위 전우들의 명복을 빌었다.

육군종합학교 전우들은 1950년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

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단기간 집중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여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다.

총 32기수 7,288명이 임관하여 1,377명이 전사하고 2,256명이 부상당하는 등 전사 상 유래없는 희생을 당한 참전 영웅들이다.

매년 현충일에 추모식을 해오다 1976년부터 대통령하사금으로 총용탑을 건립하여 독립적으로 추도식을 갖고 있다.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



다부동전투구국영사회(회장 박형수)는 10월11일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제69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

70주년 기념사업 중간평가회의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9월25일 갑종장교출발 70주년 기념사업 중간평가회의를 거행했다.

104고지전투 전승 기념 및 추모제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호연)는 9월28일 해병대 104고지 전적비에서 104고지전투 전승 기념 및 추모제를 거행했다.

금화지구 희생현우 추도식



헌병전우회(회장 홍종철)는 10월21일 3사단 헌병대앞 위령비에서 6.25참전 금화지구 희생현우 추도식을 거행했다.

통일교육원 입교 교육



대령연합회(회장 유승일)는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정에 회장단 12명이 입교했다.

정기 회장단 회의



영관장교연합회(회장 박우식)는 10월24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정기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영도유격부대 창립기념 및 추모제



영도유격부대전우회(회장 한인섭)는 10월8일 부산 태종대 유적비앞에서 영도유격부대 추모제를 거행했다

영천대첩 기념 경축회



영천대첩참전전우회(회장 한동수)는 9월30일 영천호국원에서 제69주년 영천대첩 기념 경축회를 거행했다.

전국 효도가족 100쌍 찾기 행사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정인하)는 10월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효도가족 100쌍 찾기 행사를 가졌다.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 기념식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회장 박운욱)는 9월26일 인천 수봉공원에서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 기념식을 거행했다.

자연보호운동



정보동우회(회장 박상수)는 10월2일 서울대공원에서 서리플 등산 및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했다.

포병학교 창설 제70주년 기념식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10월17일 전남 장성 육군포병학교에서 포병학교 창설 제7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향군장학기금

※ 기간 : 9월 24일 ~ 10월 23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기업 및 단체

• (주) 리마 대표 신상호 1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20(180)
-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고문 정소두 1(8)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40)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22)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1(40)
- 일반회원 다운중학교 교사 이미래 1(38)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38)
- 일반회원 한국통신 김형규 1

▶ 정기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61)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51)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 **학도의용군회**: 11월3일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에서 제63회 전국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 ▲ **해병대전우회**: 11월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장단 사천지구 전투 전승행사.
- ▲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11월8일 세종 레이크에서 친선 골프대회.
- ▲ **단기간부사관총동문회**: 11월12일 국방컨벤션에서 창립 20주년 및 회장 취임식.
- ▲ **포병전우회**: 11월14일 서울대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 ▲ **육군항공협회**: 11월14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 **백마고지참전전우회**: 11월16일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백마고지 참전영령 추모행사.
- ▲ **6.25참전유공자회**: 11월20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
- ▲ **정보동우회**: 11월20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 ▲ **영관장교연합회**: 11월21일 계룡대에서 안보현장견학행사 실시.
- ▲ **갑종장교전우회**: 11월27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상임운영확대위원회 개최.
- ▲ **화학전우회**: 11월28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 **의정총동우회**: 11월29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여행정보

서울빛초롱축제



지난 9년간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아왔던 서울 빛초롱 축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11월1일부터 17일까지 종로구 서린동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으로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의 도시부터 대중 문화와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쳐온 근현대의 추억들, 그리고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흥겨운 잔치를 열던 6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의 풍경까지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빛내고 내일을 열 우리 모두의 꿈을 함께 만나는 축제가 될 것이다.

〈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 02-2133-0910〉

민동산 역사꽃축제



민동산 역사꽃축제가 정선군 민동산에서 11월10일까지 열린다. 산 전체가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해발 1,118m의 민동산은 20만 평 가량이

역새꽃으로 덮여 있어 전국 5대 역새꽃 관광지 중 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열리는 행사가 역새꽃 축제로 등반대회는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행사다. 역새꽃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피며 산자락에는 삼태약수와 화암약수가 있다. 약 9km 거리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

〈민동산역새꽃축제위원회 033-591-9141〉

별교꼬막 & 문학축제

갯벌과 별교 문화의 만남 별교꼬막 & 문학축제가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전남 보성군 별교읍 별교천 일대에서 열린다.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이자 근대음악이 탄생한 별교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별교의 대표적 특산품인 꼬막을 활용한 향토문화 축제인 이 행사는 꼬막까기, 뽕배 타기, 갯벌 체험, 꼬막시식 등 다양한 꼬막 행사 외에도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과 소설 속의 현장을 체험하며 함께할 수 있는 별교만의 향토 짙은 축제로 사랑받고 있다.

〈별교통합축제추진위원회 061-857-7676〉

부산불꽃축제

매년 가을밤 광안리해수욕장의 하늘과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 부산불꽃축제가 광안리 해변에서 11월2일 열린다. 어느덧 15회를 맞이하게 된 축제는 이제는 부산시민만의 축제가 아닌 국내 타지역 및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불꽃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해상쇼"라는 취지대로 매년 다양한 불꽃뿐만 아니라 화려한 레이저 쇼 등을 테마에 맞는 음악과 함께 선보이며, 특이한 모양의 불꽃뿐만 아니라 초대형 불꽃도 선보이는 축제로 전국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051-501-6051〉

건강정보



환절기부터 주의 필요한 폐렴

폐렴은 폐(허파)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공기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이다.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다. 발열, 기침, 가래 등이 있어 감기와 비슷할 수 있다.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흔한 원인이다. 드물게 곰팡이 등도 가능하다. 소아에서는 특히 바이러스가 흔하다. 세균성 폐렴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구균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호흡기계의 방어력이 떨어지거나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리면 폐렴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의 증상과 함께 흉부 X-선 촬영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가래,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세균성 폐렴의 경우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며,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우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증상에 따라 진해제, 해열제 등을 사용한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과로나 음주, 흡연을 피한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65세 이상이나 기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업소 현황 전국 1,492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로덴 성문치과 병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7) 02-999-9100 : 10%
- 솔담오양병원 (충남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1055) 041-355-2002 : 10%

식당/음료

- 계룡대어죽마을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10길 17-8) 042-551-2777 : 10%
- 버블데이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115) 010-8007-6091 : 15%
- 솔밭숯불갈비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107) 02-987-1069 : 10%
- 신도안오리 (충남 계룡시 장안로 31) 042-551-5292 : 현금 10, 카드 5%
- 예천추어탕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0-1) 054-652-9100 : 10%

- 조방낙지 (충남 계룡시 장안로 43) 042-841-5759 : 현금 10, 카드 5%
- 통큰낙지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8) 042-841-8900 : 단체 10%

기타

- H. 모터스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6길 107) 02-999-4425 : 15%
- New Star golf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5) 042-862-9457 : 10~15%
- 독일지멘스보청기 (충남 서산시 교운로 33) 041-665-2210 : 30%
- 드론 디비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48-4) 042-627-0929 : 15%
- 삼학페인트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115) 010-8260-7845 : 10%
- 서울스튜디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77-6) 010-2740-6970 : 15%
- 세종장례식장 (세종시 연서면 함박로 300) 044-866-4444 : 10%
- 송림화회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113-3) 042-822-1800 : 10%(5만원 이상시)
- 아이랜드&렌즈타운 (충남 당진시 중앙로 211-15) 041-354-0008 : 10%
- 오토컬러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239) 042-551-9139 : 현금 10, 카드 5%
- 우리들안경 (충남 서산시 안경로 201) 041-665-5006 : 30%
- 제일인쇄소 (경북 문경시 신희로 161-3) 054-552-5353 : 10%

▲ 우수 가맹점 현황 (22)

병·의원/의료기기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차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사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용인다보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82번길 18) 031-8021-2114 : 1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온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밀리토피아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 031-727-9300 : 1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야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대성공업사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69) 042-624-7771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안강숯뚜껑생고기 (부산시 남구 호호로15번길 119) 051-622-4353 : 10%
- 양기순법무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8) 041-952-1401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전북로 153) 043-241-6464 : 10%
- 후대폰왕국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80) 041-953-0009 : 20~30%

안보정세보고

스톡홀름 실무회담 평가 및 향후전망

지난 6월 29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동한지 4개월여 만인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로 끝났다.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미북간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은 양국이 입장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긴 여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 측 실무회담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밝힘으로써 회담이 결렬되었음을 알렸다.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미북 양측의 평가는 상반된다. 미국은 성과가 있었던 만남으로 보고, 회담 재개에 관해서도 “한 번의 협상으로 오랜 적대를 극복할 수 없다”며 2주 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회담을 열자는 스웨덴의 제안을 수락했음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회담 결렬로 규정하고 있고, 회담 재개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2주 내에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과 북한이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회담장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개략적이거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여러 사건들을 되살피며, 양측이 관심을 가진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욱 집중적인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이 각각 진전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들(initiatives)을 간략히 소개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북한 측은 미국 대표단이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였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하였다.

미국이 소개한 새로운 구상들이 북한 대표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 미국 대표들이 “빈손으로” 회담장에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재 완화를 완강히 거부해 온 미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입장 변화를 보인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 대표단이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도 북한이 요구한 계산법을 미국이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양측이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컸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탄과 섬유 수출에 대한 제재 유예의 대가가 영변 핵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우리농 농축의 완전한 중단이었다면 북한으로서는 값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영변 폐기 대신 민생 관련 제재 전부의 해체를 요구했던 하노이 회담 당시와는 달리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두 방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국군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등을 안전보장 조치로 제시하였다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등이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실무회담, 북한의 계획된 협상전략인가?

이번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유는 김명길 북측 대표의 협상 결렬 발언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온 게 없다고 했다. 북한이 취한 핵심 협 중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유해송환과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이 먼저 동의 있게 화답해야 그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과 반대로 미국은 북측의 발표가 8시간 만에 이르는 협상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창의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4개 합의 내용을 발전시키

미-북, 인내심 갖고 양보하는 자세로 타협점 찾아나가야

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 대표단은 8시간이 넘는 협상을 마치고 태연하게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김명길의 발언은 협상결렬 선언을 미리 의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에 협상의 내용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12월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계획한 북한의 협상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있는 대선과정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을 두려워한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정책 성과인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중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경고한 것이 그 근거다. 지난 10월 2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호 실험을 한 것도 이러한 셈법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타진하며 자신들의 협상 전략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해당하는 SLBM 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보며 협상 수위를 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침묵을 유지했다. 북한에 있어서는 약점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핵 보유의 길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선행조치들은 아무리 협상이 다급한 트럼프 행정부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재를 먼저 해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했다가는 미국 국내의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신들은 대화에 성실히 임했지만,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실무회담을 결렬시킨 이유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북한 대표단이 회담을 되풀이하면서 절충을 시도하려 하지 않고 회담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너무 커서 실무급에서 논의를 반복하는 식으로는 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본 듯하다. 과감한 양보를 결단 할 수 있는 고위급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회담 재개를 요청하기를 기대하면서 2주내 회담 재개라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압박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도 회담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재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미국이 유연한 접근,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세우며 새로운 구상을 제시한 것은 판문점에서의 미북정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담 재개를 미루면서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결과라고 북한은 판단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탄핵을 둘러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승리를 장담 했던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성이 적지 않다. 반면에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왔다.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는데다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안정된 경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들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다. 마찬가지로 북한 대표단은 시간이 북한의 편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스톡홀름 회담의 결렬을 선언하였을 것이다.

향후 진행될 비핵화 협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미국이 영변 핵시설과 그 밖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석탄과 섬유제품 수출을 3년간 허용해준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다. 이 거래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보다는 결국 동결 거래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 후 제재가 작동되면 북한은 동결을 풀고 다시 핵물질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제재를 유예해 줘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런 협상 행태를 지난 30년간 반복해 왔다. 만일 12월 이전에 실무협상이 재개되어 트럼프 행정부가 더 양보한다면 북한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한다는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밝히지 않고, 영변 정도의 폐기로

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 받게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핵물질 생산시설로 대북제재를 맞바꾸면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kg 내외의 핵물질과 핵탄두 그리고 ICBM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완전 비핵화 협상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북한은 핵보유국을 굳히게 될 것이다.

비핵화 실무회담 향후 전망

미북 실무회담이 단기간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보다 진전된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재 유예 방안을 제시했던 미국으로서는 그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안전보장 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한국군의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동맹 19-2’와 같은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미군과 미 국방부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방증한다. 더욱이 한국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능력을 검증하는 형태의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두 측면에서의 추가적 양보를 포함한 방안을 어렵사리 마련하여 회담 재개를 요청한다면 미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북한이 또 다시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내에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대선의 첫 판문이라 할 수 있는 아이오와 코커스가 2020년 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부터 재선을 위한 캠페인에 몰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의회의 탄핵조사와 대선 등으로 쫓기는 입장이 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이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계속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협상 재개를 위한 요구 수위를 낮추지 않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먼저 협상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내에 미북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거나 미국이 협상 종결을 선언할 경우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게 군사적 개입이나 추가적 제재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상황을 관리하는 식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 방책이 될 수 없다. 우선 북한은 원원해 온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추가적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이 없더라도 비핵화 거부를 명분으로 최대압박정책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차원의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압박은 북한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선택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조건을 고집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자세로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톡홀름에서와 같은 공개적 회담보다는 비공개 접촉을 가지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 어디서든 만나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국 간 논의는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거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방도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10. 07
2.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김정은위원장의 대미정책 전환 방향, 세종연구소, 2019. 10. 07
3. 스톡홀름 노딜, 북한 핵 협상 ‘위장전술’의 실체, 아산정책연구원, 2019. 10. 08

※ 본 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